

4/2/17

설교 제목: 욥의 최후 변론, 우리의 최후 변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31:1-40

- (욥 31: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 (욥 31: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 (욥 31: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 (욥 31: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 (욥 31: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 (욥 31: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 (욥 31: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 (욥 31: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 (욥 31: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절관주** 렘 5:8
- (욥 31:10)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절관주** 신 28:30, 렘 8:10
- (욥 31: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 (욥 31: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절관주** 잠 6:27, 욥 20:28
- (욥 31: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 (욥 31: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절관주** 마 22:12
- (욥 31: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 (욥 31: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 (욥 31: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 (욘 31: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 (욘 31: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하였다면 **절관주** 욘 22:6, 욘 24:4
- (욘 31: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 (욘 31: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 (욘 31: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 (욘 31: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 (욘 31: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 (욘 31: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 (욘 31: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 (욘 31: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 (욘 31: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 (욘 31: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 (욘 31: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 (욘 31: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 (욘 31: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 (욘 31: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 (욘 31: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 (욥 31: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 (욥 31: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 (욥 31: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 (욥 31: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절관주** 창 4:10
- (욥 31: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절관주** 레 19:13
- (욥 31: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거한 지식과 지혜인 인과 응보론과 추수의 법칙을 욥에게 적용하여 확실한 근거도 없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 부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지 욥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큰 재앙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논리입니다.

세 친구들의 공박에 욥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 친구들이 세 번째 돌아가면서 차례로 공박하기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함으로써 세 친구들과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욥은 최후 변론을 진술함에 있어서 “만약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내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무죄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에게 언급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것이니 그런고로 나는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범죄 행위를 몇 가지 범주로 분류시켜 놓고 자신의 논리로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1. 호색

(욥 31: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 31: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 31: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 31: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죄악들을 언급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 자신이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욥이 자신과 체결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살피고 계셔서 걸음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전제된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분깃과 기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녀에게 눈을 파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이런 재앙을 맞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속임과 탐욕

(욥 31: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욥 31: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 31: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욥 31: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이 정도를 벗어난 거짓된 행위 즉 속임수, 탐욕으로 인한 더러운 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3. 간음

(욥 31: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욥 31:10) 내 아내가 타인의 멧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 31: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욥 31: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욥은 이웃의 아내에게 유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종이 되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을 하여도 마땅하다고 합니다.

4. 종들을 향한 태도

(욥 31: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 31: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 31: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나 종이나 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5.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향한 태도

(욥 31:16)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욥 31:17)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욥 31:18)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욥 31:19)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 체 했다면

(욥 31:20)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욥 31:21)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욥 31:22)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욥 31:23)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덮을 것을 나누고, 고아와 같은 약한 자를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문은 재판정을 팔은 권력을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라고 한 말은 만약 자신이 고아들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였다면 자신의 권력이 다 떨어져 나가 없어져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덧붙여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 재물 사랑과 우상 숭배

(욥 31: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욥 31: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 31: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욥 31: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욥 31: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재물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해와 달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7. 원수와 나그네들을 향한 마음 씩씩이

(욥 31: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욥 31: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 31: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욥 31: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과 그가 당한 재난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 풍족히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배려도 했다고 합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지만 욥은 율법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8. 죄에 대한 태도

(욥 31: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욥 31: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범한 악행이나 죄악을 숨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욥은 자신이 젊은 시절 지은 죄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지었는지 모를 자식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해 속죄제도 지냅니다.

욥은 자신의 악행이나 죄악을 숨기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고 속죄했습니다.

욥은 최후 변론을 마치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장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자신을 고발할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욥 31: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 31: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욥 31:37)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9. 경작지에 대한 오용과 남용

(욥 31:38)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욥 31: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욥 31: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땅의 소유자를 속여서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땅이 욥에게 대항하여 소출을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 구절이 35 절 앞에 놓여야 했는데 이곳에 잘못 놓인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은 지금 부당한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죄도 없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의로운 욥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욥은 죄없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범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속죄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욥 42: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 42:8)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 42: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세 친구들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으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우리는 고난 중에도 자신이 의인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속죄받았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어떠한 송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송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다가와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죄책감을 심어 줍니다.

성도는 본래부터 죄를 짓지 않아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칭의를 입은 의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어떤 정죄함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최후 변론도 욥의 최후 변론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인 것입니다.

(욥 19: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몹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한 것처럼 칭의를 입어 의인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끊임없는 송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